

『종교와 문학』 제25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3, pp. 1-25.

## 광복 이후 한국종교의 정체성\*

김 종 서\*\*

1. 한국종교 정체성의 탐구
2. 광복 이후 한국종교의 정체성 변화
  - 가) 거대 조직의 탄생
  - 나) 세속화의 전개
  - 다) 종교다원주의와 신종교의 대두
3. 광복 이후 한국종교의 독특성 문제
4. 한국종교 정체성의 미래 비전

### 1. 한국종교 정체성의 탐구

“‘종교(religion)’라는 말을 잘 아는 서양인들에게는 좀 이상하겠지만, [한국인들에게] ‘종교’라는 단어는 아주 넓은 의미로 쓰이는데, 인간보다 높거나(superhuman), 인간보다 낮거나(infrahuman) 또는 아주 더 넓게 보면, 인간 밖에 있는(extra-human) 어떤 현상까지를 불들거나 또는 붙든다고 믿는 모든 관계(relation)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는 게 좋다고 본다.... 모든 한국인의 심성(Korean mind)에는 하나의 뒤틀리기 전체(a jumble of the whole)가 있다. 즉, 논리적으로는 서로 논박도 하지만, 서로 다른 신행들(cults) 사이에 적대감은 없다. 그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서로 친숙해져서 일종의 종교적 복합물(a sort of religious composite)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개인들은 나머지를 전혀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성분들(ingredients)을 택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복합 종교(composite religion)의 어느 한 양상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한국인은 사회 속에 있을 때는 유교도(Confucianist)이고, 철학적이 되면 불교도(Buddhist)이고, 곤경에 처했을 때는 정령숭배자(spirit-worshipper)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sup>1)</sup>

\* 이 논문은 2013년 2월 1일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주최, “광복 이후 한국사회와 종교의 정체성 모색”이라는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한 “광복 이후 한국종교의 정체성과 역할”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하는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교수/ 종교학

## 2 종교와 문화

이것은 서양 선교사로 19세기 말 한국에 들어왔던 헬버트(Homer Bezaleel Hulbert, 岷法 또는 轄甫, 1863-1949)의 글이다. 비록 서양인 선교사이지만 기독교적인 시각을 넘어서 ‘타자’로서 ‘한국종교’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은 오늘날 한국종교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서양의 유태-기독교 중심 배경의 ‘종교(religion)’ 개념만으로 한국종교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종교’는 한국인의 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종교전통들을 모두 포함해 그들이 각기 전통들을 유지하면서 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한국종교는 한국인의 심성을 근저로 하여 여러 종교전통들의 성분들이 완전히 뒤엉킨 복합물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여러 종교가 있는 것 즉 종교다원성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종교에 연루되는 것 즉 종교중층성이 드러나는 계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헬버트는 당시 한국종교의 정체성을 한국인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경험하는가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한국종교는 그 구성성분의 분석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쓰임새가 있어야 존재의의가 있게 되고, 확고한 정체성을 담보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헬버트의 교훈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과연 ‘한국종교의 정체성’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종교학적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자체보다도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니까 한국종교의 정체성 즉 그 본래 모습도 추상적인 것보다는 경험 속에서 믿어지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선 ‘한국종교’ 하면 흔히 ‘한국의 종교’ 즉 ‘한국에 있는 종교’들인 무속, 유교, 도교, 불교, 및 기독교와 신종교들을 각각 나열하듯 다룬다. 물론 이런 종교전통들을 구성요소들로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늘 부분의 합이 단순히 전체는 아니라는 것은 되짚어져야 한다. 즉 ‘한국종교’는 이런 종교전통들 자체만이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나 비중 그리고 다른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까지가 반영된 복합물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종교의 원류를 무속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과연 무속 이전에는 한국에 종교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 종교진공 상태에 샤머니즘과 유교, 도교 및 불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차례로 도입되어 ‘한국종교’를 형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한국인의 종교(심)성이 이렇게 유입된 틀들에 담기며 그 걸모양이 변해왔을 뿐이라는 것이다.<sup>2)</sup>

1) Hulbert, H. B., *The Passing of Korea*, London, 1906, p. 388, 필자 번역.

2) 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한국사상사대계 6』, 경기도: 한국정신문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종교'가 여러 종교로 구성된 다원적인 것이고, 동시에 하나였던 종교(심)성이 나타난 것이므로 한 사람이 여러 종교에 연루되어 중중적으로 그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즉 한국인은 살다가 보면 여러 차원에서 현실을 다양하게 극복해내야 한다. 답답한 곤경에 처했다고 여겨지면 타고난 팔자를 탓하고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을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무속), 현실 자체를 사람다워지는 이상적 기준 덕목에 의해 반성하거나(유교), 환상이라고 깨달아 부질없다고 부정해버려 마음을 비우고(불교) 살아낸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인 고통이 궁극적 존재와의 관계를 믿으면 아무 것도 아닌 정상적인 것이어서 이른바 종말론적인 미래 비전을 가지고 견디어 낼만 하다고 여기며 해쳐 나가게 된다(기독교). 결국 삶을 살아내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본래 하나의 한국종교인 셈이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원으로든 나름대로 절실히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모티브는 다 같은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문제를 종교적 맥락에서 풀려고 하는 한 한국종교는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그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정되는 한국종교의 정체성은 종교인구 조사에서 확인된다. 현재 까지 시행된 종교 인구조사 중에서 전수조사로서의 명목적 신뢰도를 고려할 때 아직도 가장 최근의 것은 역시 2005년 인구총조사의 결과다.<sup>3)</sup>

화연구원, 1993, pp. 243-314.

3) 대한민국 통계청, <http://www.nso.go.kr/>

구분 종교별	2011년 총단체수	수치파악			신도수(명): 인구 및 주택센서스		
		2011년 교당수	2011년 교직자수	비 고	2005.11.1	1995.11.1	1985.11.1
불교	265	26,791	46,905	137종단	10,726,463	10,321,012	8,059,624
개신교	232	77,966	140,483	118교단	8,616,438	8,760,336	6,489,282
가톨릭	1	1,609	15,918	성당수	5,146,147	2,950,730	1,865,397
유교	1	234	235	향교수	104,575	210,937	483,366
천도교	1	105	630		45,835	28,184	26,818
원불교	1	550	1,979		129,907	86,823	92,302
대종교	1	22	11		3,766	7,603	11,030
기타종교	64	2,391	26,650	20 종단	197,635	232,209	175,477
계	566	109,668	232,811		24,970,766	22,597,824	17,203,296

(표2) 종교별 교세 현황 (수치파악: 2012년 3월 20일까지 각 종단 협조 자료 수치,  
총인구:2005-47,041,434)

이 조사의 종교 인구학적 의미에 대하여, Kim, Jibum, Yongmo Lee, and Tom W. Smith, "Trends of Religious Identification in Korea: Changes and Continuities," *Journal for*

종교인 2,497만 (53.1%)			비종교인 2,207만 (46.9%)
불교 1,073만 (43%)	개신교 862만 (35%)	가톨릭 515만 (21%)	

(표1) 2005년 인구센서스의 종교분포

이 조사에서 보면 한국인은 전체인구의 53.1%가 특정종교를 믿고 있다고 자기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반이 약간 넘을 정도로 자신이 종교인이라고 상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비율은 미국(60%이상) 같은 서방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셈이지만, 이웃 나라 중국(8%정도)이나 일본(20~30%)에 비하면 꽤 높은 것이다.<sup>4)</sup> 하지만 여기서 전 국민의 반 가까이가 비종교인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물론 이 가운데 유교가 자신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 종교보다는 생활 의례 규범으로 여겨서 자기 확인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종교에 대한 비판이나 무관심 등 비 종교적 담론이 사회 전체에서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여기서도 비종교인이라고 한국종교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종교의 정체성 자체는 인정하되 자신은 그런 성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5)</sup>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8/4, (2009): 789-793 참조.

- 4) 사실 종교 인구에 대하여 우리나라처럼 전수조사 통계가 있는 나라는 선진국들에도 거의 없다. 미국은 표본조사의 추정치이고, 중국은 단순 추계치 그리고 일본은 표본조사 기관에 따라서 거의 10%의 차이가 있다. Caplow, Theodore, et al., *All Faithfull People: Change nad Continuity in Middletown's Relig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pp. 20-30, Guo Changgang, "China," In Juergensmeyer, Mark & Wade Clark Roof, eds., *Encyclopedia of Global Religion*, Vol. 1, London: Sage Publishing LTD., 2012, pp. 197-198, Inoue, Nobutaka, *Contemporary Japanese Religion*, Tokyo: Foreign Press Center, 2000, pp. 44-45.
- 5) 예컨대, “개인 생활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물음에 65.4%의 응답자가 “중요하다”라고 답하고 있다. 여기서 심지어 무종교인의 경우에도 43.9%가 “중요하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서울, 1990, p. 106.) 이런 종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남성(60.6%)보다 여성(70.0%)이 더 강하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마음의 평안’(65.0%), ‘복’(11.4%), ‘내세’(10.5%), ‘삶의 의미 추구’(9.5%)의 순으로 대답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가톨릭 신도가 ‘마음의 평안’에 제일 많고, 불자들의 경우는 ‘복’, 개신교도는 ‘내세’가 가장 높다. 같은 책, pp. 107-110. 이것에 대하여, 이원규, “해방후 한국인의 종교

2005년 인구 총 조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다. 그것은 한국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종교전통에서 불교인구(1,073만)보다도 개신교(862만)와 가톨릭(515만) 인구를 합치면 즉 기독교 인구가 약간 더 많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종교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독특성을 제시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에 다종교 국가는 많다. 그러나 미국은 유태 기독교 전통이 주류이고 동양 종교들은 작은 집단들에 불과하다. 또 중국과 일본도 여러 종교가 있지만 거의 동양 유래 종교들이다. 기독교는 아주 미약하다. 동서양의 종교들이 서로 경쟁할만한 수준으로 엇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한국종교의 정체성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중요한 한국종교의 독특한 정체성 구성 요소다.

기본적으로 정리해보면, 한국종교의 정체성 탐구는 종교의 개념 자체 그리고 한국종교의 개념과 관련이 있고, 종교전통, 종교들의 인간 삶 속에서의 위상 그리고 종교들의 교세 및 독특성 등 복잡한 구성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잘 아우르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광복 이후 그 변화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 2. 광복 이후 한국종교의 정체성 변화

한국인이 삶 속에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늘 반복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길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종교의 정체성의 뿌리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환경에 따라 다른 경험을 초대한다. 그리고 인간의 종교인식이 경험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면, 경험이 바뀌면 한국종교의 개념 자체도 변화되기 마련이다. 특히 개화기 이후 한국은 근대화의 큰 물결 속에서 엄청난 새로운 경험들을 한다. 즉 끊김 없이 여러 종교전통들을 관통하여온 한국종교의 본래 모습이 어딘가 남아 있는 반면,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종교의 정체성은 또 다른 여러 모습으로 표출되어 왔다고 하겠다.

### 가) 거대 조직의 탄생

무엇보다도 광복 이후 한국종교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종교자체가 거대 조직

---

의식구조 변천연구," 김종서 외,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p. 212에 더 자세한 분석이 있다.

## 6 종교와 문화

화 된다는 것이다. 종교인구가 급성장하고 그러다 보니 종교조직들이 커져서 교단이나 개별 종교단체들이 모두 확대된다. 한국종교의 개념 자체가 개인적인 신행 위주에서 공동체로서의 위상이 크게 부각된다. 산중에 메아리치던 목탁소리나 가사 중심 읽다시피 부르던 찬송가로 연상되던 외딴 절과 시골 예배당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새벽을 가르는 도심포교당의 천배 열기와 주차장에만도 압도되는 강남교회의 통성기도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거대한 힘뿐이다.

물론 이러한 한국종교의 거대 조직화의 뿌리는 개화기 이전 조선 후기 신분제도의 급변에까지 한참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개화기 이전까지 종교라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유교만이 종교로 여겨져서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다. 서민이나 여자들이 불교나 무속을 접한 경우는 물론 흔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였다. 따라서 심지어 신도와 불교 및 기독교를 공인종교로 간주하였던 일제강점기까지도 통계들을 보면 종교인구가 전 국민의 5% 미만에 머물고 있다.<sup>6)</sup> 사대부 양반층만 오직 유교를 종교로 알고 종교인 행세를 했고 상민들은 아직 종교적 입장은 감히 자기 확인할 자격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향리 또는 서얼 출신들로 구성된 중인층의 대두는 새로운 종교질서를 향한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예고하였다. 마침 이때쯤 서구에서 도입된 진화론은 사회적 성격을 떠면서 양반과 상민 사이의 깊은 불연속적 간격을 이어낸다. 다시 말해서, 중인들의 대두와 더불어 확대된 반상의 구분 타파는 개화기 이후 한국종교의 주체 구성에 결정적인 변화의 요인이 된 셈이다. 양반층의 독점문화였던 종교가 모두에게 열린 기본 권리로 인식되면서 소위 '대중화'의 큰 물결을 타게 된다. 특권층의 특수 문화가 아닌 한국인 모두가 선택 가능한 보편적인 삶의 한 측면으로 종교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광복 이후 창씨개명 되었던 이름을 되찾고,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동이 빈번하고 삶에 쫓기다보니, 성씨나 족보 등의 개념이 훨씬 약화되었고 신분제도의 흔적은 훨씬 더 철저히 청산되었다. 종교를 아무나 믿고 종교인이라고 자기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교 인구가 급증하고 종교단체들의 교직자 수와 교당수가 늘어났고, 점차 교단들이 비대화 되고 심지어 분파화까지 하면서 마침내 한국종교 자체가 거대 조직으로 변모하게 된다.

도대체 얼마나 거대화 되는가? 이것은 종교 통계들을 기반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들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광복 이후 당

6) 예컨대, 真鍋 半八, “統計上より觀たる朝鮮の宗教,” 『朝鮮』 192 (1931, 5): 117-126, 神寶 長治, “朝鮮に於ける宗教の概要,” 『朝鮮』 296 (1941, 1): 74-86에 보면, 1929년에 2.6%, 1938년에는 4.9%로 나온다.

장 국가 체제가 안 잡힌 상황에서 종교 통계만 내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있어도 빠진 게 많고 특히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자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통계자료들이 있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있는 자료를 가능한 단순화 시켜 활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sup>7)</sup>

연도 인구	총인구	종교인구
1938	1,370만	71만
2005	4,700만	2,497만
증가	3.4배	35배

(표3) 광복이후 종교인구 변화

우선 종교 인구부터 보면, 1938년 말 현재 총 인구 2,260만 명<sup>8)</sup> 중 일본신도 신도수를 제외하면 100여 만 명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한 종합으로서, 남한만 따로 하면 총인구 1,370만 명 중 종교 인구는 71만 명으로 집계 되었다.<sup>9)</sup> 이

7) 광복 당시 종교 인구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통계는 1960년대 중반 이후에나 비교할만한 통계가 나온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나마 공식적으로 조선총독부에서 내놓은 가장 근접한 통계로서 1938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된 것에 기초한다. (神寶 長治, 앞의 논문.) 이 자료가 소위 공인종교, 즉 신도, 불교 및 기독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유교나 여러 신종교들을 다루지 않은 점은 문제다. 그리고 조사방법이 자세히 거론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쉽지만 그래도 더 나은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견주어, 최근 한국종교 통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펴낸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2012) 물론 여기서도 전체 종교 인구 등을 2005년 인구 총 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참고적으로 한국 종교통계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Baker, Don. "A Slippery, Changing Concept: How Korean New Religions Define Religion,"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2 No. 1 (2011): 58-62 참조.

8) 참고로 최근 나온 정밀 추정치는 1938년 총 인구를 2,374 만 명(남한 1,535만 명) 정도로 잡고 있다. 김낙년 편, 『한국의 장기 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p. 341.

9) 이 가운데는 일본인 등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숫자의 약 75% 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당시 남한의 순 한국인 불교 신도 수는 16만 여 명이고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친 남한의 기독교 신도 수는 23만 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당시 가톨릭과 개신교인의 수는 약 1:3 정도다. 참고적으로 1938년 통계에는 신종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종교는 유사종교라 하여 가장 근접한 것으로 1934년 종독부 조사가 있었다.(村山 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최길성, 장상언 역, 계명대출판부, 1991, pp.

## 8 종교와 문화

예 비해, 2005년 인구 총 조사에서는 남한 총 인구가 4,700만 여 명인데 종교 인구는 2,497만 여 명으로 나온다.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정확히 하면 1938년 말부터 2005년 말까지) 67년 간 총 인구는 3.4배 정도 늘어난 셈인데 종교 인구는 무려 35배로 확대 되었다.<sup>10)</sup> 물론 이렇게 종교 인구가 확대된 데는 누구나 택할 수 있게 된 종교의 대중화가 역시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북한이 공산화 되면서 많은 종교인들이 월남하고, 도시화와 빠른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주민 등에게 한국종교들이 새로운 공동체적 연대감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sup>11)</sup>

이렇게 종교 인구가 확대된 것은 당연히 종교 조직의 거대화를 초래하였다.

연도	교당수	총교당수	불교	기독교
1938		6,500	930	2,700
2011		110,000	26,791	79,575
증가		30배	29배	30배

(표4) 광복 이후 교당수 변화

우선 단위 종교조직에 해당되는 교당 수를 보면, 1938년 불교와 기독교의 총 교당 수는 6,500여 개소이다. 이중 불교가 1,300여 개소이고, 기독교는 5,200개 소에 조금 못 미친다. 또 기독교 가운데 가톨릭이 470여 개소이고 개신교가 훨씬 많아서 4,600개소에 가깝다. 남한만 따져 보면, 불교가 930개소이고, 기독교는

383-390) 이때 천도교인수는 총 93,406명 (남한만 6,440명)으로 집계되어 교인이 거의 북한에 대다수 있었다. 1934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남한에서 교인이 45,835명으로 7배 늘어난 셈이고, 교당 수는 총 193 (남한 122) 개소에서 105개소로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원불교(당시 불법연구회)는 1934년 말 총 교인수가 822명으로 모두 남한 거주자로 집계되고 교당 수는 8개소로 나온다. 2011년 말에 총 교인 수 129,907명이고 교당 수는 550개 소로 나오니 무려 각 158배와 69배가 되어 광복 이후 가장 큰 성장을 한 셈이다.

10) 이 시기의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종교 인구수가 총 인구수의 50% 정도이다 가 60%를 약간 넘을 정도로 확대된다. (Rosten, Leo, ed., *Religions of America*, New York: Touchstone, 1975과 Caplow, Theodore, et al., *Op. Cit.*, 참조) 반면에 일본은 태평양전쟁 직후 총 인구수의 60-70%까지 올랐던 종교 인구가 최근 20-30%로 떨어졌다. (Inoue, Nobutaka, *Contemporary Japanese Religion*. Tokyo: Foreign Press Center, 2000, p. 44.)

11) 권규식, “한국종교와 사회변동의 특수성 연구,” 김종서 외,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 71.

2,700여 개소여서 총 3,630여 개소이다. 이에 비해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보면, 남한 전국의 교당 수는 거의 11만 개에 이른다. 그러니까 전체 교당 수는 30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신도 수보다는 약간 덜 늘어난 셈이다. 불교만 따로 보면 2011년 말 전국의 사찰 수는 26,791개소이고,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는 합쳐서 79,575여 개소이다. 불교는 거의 29배 늘고, 기독교도 30배에 약간 못 미쳐 비슷한 성장을 한 셈이다.

교직자수 연도	총교직자수	불교	기독교
1938	8,110	5,660	2,450
2011	232,811	46,905	156,401
증가	29배	8배	64배

(표5) 광복이후 교직자수 변화

교직자수를 보면, 1938년 말 불교는 7,250여 명이고,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친 기독교는 4,530명이다 여기에 기독교는 따로 외국인 선교사가 420여 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남한만 따로 보면, 총 교직자는 8,110명으로 불교는 5,660명이고 기독교는 2,450여 명이다. 이에 비해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보면, 남한 전체의 교직자는 232,811명이고 이중 불교는 46,905명이고, 개신교 140,483명과 가톨릭 15,918 명을 합친 기독교의 교직자는 156,401명이다. 총 29배 정도 확대되었고, 불교는 8배 정도만 늘었는데 기독교는 무려 거의 64배가 확대된 것이다. 사실 가톨릭은 작게 늘고 개신교가 무척 확대된 셈이다.

교직자수:신도수 연도	총종교	불교	개신교	가톨릭
1938	1.25:109	6:176	0.9:73	0.8:194
2011	2.12:227	1.75:400	1.8:110	9.9:3,198

(표6) 1교당관리

이것을 연관시켜 보면, 1938년 불교 사찰의 경우 하나의 사찰에 승려 6명 정도가 신도 176명을 상대했던 셈이고, 개신교는 하나의 교회에 0.9명의 목사가 73명 정도의 신도를 관리했고, 가톨릭은 0.8명의 사제가 약 194명의 신도들을 돌보았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2011년에는 불교는 한 사찰에서 1.75명의 승려가 400여 명의 신도를 만나고, 개신교는 하나의 교회에 1.8명의 목사가 110여 명의 신도를 관리하고, 가톨릭은 하나의 성당에 9.9명의 교직자가 3,198명의 신도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사찰의 승려수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셈이고, 교회는 목사수가 2배로 그리고 성당에는 10배 정도 교직자수가 늘어난 셈이다.

연도 \ 신도관리	총종교	불교	개신교	가톨릭
1938	87	30	70	240
2011	107	200	60	323
증가	1.23배	6.67배	0.86배	1.35배

(표7) 교직자 1인당 신도관리

다시 정리해보면, 불교 승려는 1인당 30여 명 불자를 만나다가 200여 명으로 늘어난 셈이고, 개신교는 교직자 1인이 70명 정도의 신도를 관리하다가 60여 명을 관리하게 되었고, 가톨릭은 교직자 1인이 240여 명의 신도를 돌보다가 323명의 신도들을 돌보게 된 셈이다. 아무래도 개신교나 가톨릭에 비해 불교 승려들이 신도 관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교세 확장과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종교 조직의 거대화가 있고, 조직의 거대화는 한국종교의 교단 시대를 열었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거의 모든 종교단체들이 개별 교당을 넘어서 교단 중심으로 대 사회활동을 하게 되었고, 더욱 더 큰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광복 이후 한국종교의 교단들

12) 이 점에 대해서는 노치준, “해방 후 한국 종교조직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김종서 외,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 154ff. 참조.

13) 북한의 경우는 교단이 와해되어 실질적으로 종교가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탈북 자들의 증언에서 남한의 종교는 매우 낯선 것으로 묘사된다. 또 주체사상 속에서 종교들은 존재의의를 유지하기 어렵다.

은 일제강점기의 상처로서 남겨진 신사참배와 대처승 문제에서 발단하여 각종 분파화가 생겨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갈등이론에서도 지적되듯, '비온 뒤에 땅 다져 진다'고 분파화는 교세화장에 일부 공헌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8개 종단이던 불교가 '전통사찰보존법' 이후 2011년 265개 종단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반드시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연도	외부기관수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사회봉사기관 총수
1938		320
2011		1744
증가		5.45배

(표8) 종교관련 외부기관 수

교단 조직의 확대는 사회적 책임의식으로도 연결되기 마련이다. 1938년 말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사회봉사기관을 통틀어 소위 종교 교단들의 외곽조직의 수가 남한 전체에 320개소에 불과 했다. 2011년 말에는 1,744개소에 달하고 규모나 내실 면에서 훨씬 커졌을 뿐만 아니라, 종교 언론, 박물관, 미술관 등 분야 자체가 사회 문화 전반으로 크게 확대 되었다. 한국종교의 정체성에는 엄청난 힘의 상징이 길러진 셈이다.

#### 나) 세속화의 전개

광복 이후 한국종교의 변동 담론에 또 하나 중요한 테마는 역시 세속화일 것이다. 여기서 '세속화'란 가치중립적 용어로서 흔히 신학에서 비판되어온 '세속주의'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종교가 세속의 일에 뛰어 들면서 본래 종교적인 면 자체는 그대로라도 사회적인 힘을 잃어 가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런 세속화의 뿌리도 개화기 종교변동의 근저에까지 박혀 있다.

그러니까 전통사회의 한국종교는 아직 한국인의 삶 속에서 미분화 된 채 있었다. 근대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분업은 사회 문화를 동반하였고, 종교 개념에도 문화는 어김없이 적용되었다. 예컨대, 전통 사회에서 향교나 서원 같은 교육기관은 강학(講學)기능만이 아니라 향사(享祀)기능을 지닌 채 종교의 일부를 포괄하고 있었다. 병을 고치는 의료 영역도 무당의 병굿이나 한의학의 음양오행 등 종교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다. 통치를 위한 정치 행위조차도 다 유교 이

념을 펼쳐서 하는 것으로 종교적 실천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사회 분화가 본격화 되면서 종전에 종교라고 하면 더불어 상기되었던 이런 성현을 본 받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치고, 경전에 근거하여 나라 질서를 잡아주던 폭넓은 종교의 이미지가 대폭 축소되게 된다. 그러니까 종교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오직 믿고 행하는 상징체계로 탈바꿈한 것이다. 사회제도적 차원보다 훨씬 개인적 진리나 신앙 및 구원만이 종교적 관심의 핵이 된다. 이것은 물론 종교 입장에서 보면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오히려 순수화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교육, 의료 및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면, 이제 종교가 힘을 잃고 작아지는 세속화의 과정이었던 셈이다.<sup>14)</sup>

이런 세속화는 일제강점기 친일의 부분적 정당화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광복 이후 사회구조들과 종교 교단들의 거대화와 더불어 더욱 더 급물살을 탄다. 그리고 점차 두 방향으로 나뉜다. 보수 성향에서는 이른바 상업화로 흐르고, 진보 성향에서는 해방운동들도 전개된 것이다. 산업화가 거세지면서 보수적 교단들이 훨씬 성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가 있었다. 교단의 거대화와 더불어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고, 오늘날 교인 수 10,000명 이상의 어른 신자를 가진 대형 교회 15개 중 12개가 오순절과나 그에 유사한 예배 방식을 따르는 보수적 복음주의 노선에 있다. 천불전, 만불전의 불사를 목표로 하는 대형 사찰들과 그들의 도심포교당들도 줄을 이었다. 성당들도 커졌고 가톨릭 성지들도 엄청 확대되었다. 종교가 현금을 강요한다거나, 사회적 약자를 돋기는커녕 땅 사고 건물 짓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성스러움을 경험하기보다 복을 빌려만 종교를 찾아가고, 종교들은 기복을 빌미로 돈 버는 데만 여념이 없다고 따가운 고언들도 많았다. 특히 개신교가 가장 심각했다.<sup>15)</sup>

사실 이런 종교의 상업화는 세속화의 당연한 귀결이고, 본래는 새로운 형식의 세속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세속화 자체가 다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있듯이, 그 자체가 반드시 비난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기복적 성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는가? 또 상

14) 이런 문화 과정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은 김종서, “개화기 사회문화 변동과 종교인식,” 권태억 외,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 398-410 참조.

15) 이런 맥락에서, 종교의식 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종교단체 수가 많은 편(67.9%)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44.0%)이 강하다. 또 “개인은 종교단체에 얹매이기 보다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믿음을 실천하면 된다.”는 것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86.5%)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원규, “해방 후 한국인의 종교의식구조 변천연구,” 김종서 외,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p. 220-221.

업주의가 팽배한 미국 교회들은 엄숙하고 지식 위주 설교를 해온 독일 교회들과 사뭇 다르다. 예배에서는 물론 예수 치약이나 할렐루야 멜그컵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조차 기독교를 담은 상업적 메시지들과 살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이 살아남는다고 주장해왔다.<sup>16)</sup> 아마도 어느 정도 상업적 성향을 끌어들이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분명히 상품화의 시대에 우리 한국교단들도 상업문화를 새로운 세속성의 한 형식으로 이해하고 고리적 세련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진보적 성향에서는 세속화가 다양한 해방운동을 초대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생긴 음지에 머무르는 억눌린 무리들을 위한 이른바 '도시산업선교,' '민중교회'와 '민중불교' 운동이 속출하였다. 민주화, 인권, 노동자, 농민, 북한 및 통일 등의 문제에 정의구현사제단과 기독교장로회를 비롯한 진보 종교 세력들이 앞장을 섰고,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도시산업선교회 등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조직화 되어 왔다. 특히 민중신학은 서구 신학에만 끌려오던 한국 신학계에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한 자생적 신학운동으로서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더구나 겨우 선교 100년을 지난 한국에서 이렇게 급성장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민중신학을 토대로 더욱 세계적 차원으로 국제 신학운동에 새로운 해방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한편 1980년대 법난을 거치면서 자각의 기회를 맞이한 불교도 전통적인 단순 호국불교 일변도의 성향을 벗어나 국가 사회문제에 훨씬 성숙한 입장을 표출하게 된다.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뒤에는 다양한 NGO 운동에 여러 종교집단들이 참여하여 해방운동의 맥은 정치적 경제적 울타리를 넘어서 여성해방, 환경해방 등으로 까지 번져 나갔다. 불교는 이미 말사 주지의 반 이상이 여성이고 원불교는 일찍부터 여성 교무들이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개신교는 오랜 투쟁과 기다림의 결과로 겨우 여성 목사 안수제도가 모든 교회에 수용되었다. 가톨릭은 여성의 지위 면에서 어차피 세계적으로 가장 뒤 떨어져 있으니 한국가톨릭만 탓할 수는 없다. 아무튼 신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직자 양성기관에서 점차 여성이 더 많아지고 중심이 되었다. 호적법 폐지와 동성동본 혼인금지 철폐 등에서 여성단체들은 꼴 보수로 전근대적이라고 지목되어 온 유교에 더욱 심한 타격을 가했다.

또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환경문제에 종교들의 다양한 입장이 표명되었고, 실제로 환경 보호를 위한 종교계의 실천운동이 다발적으로 도처에서 보도되었다. 한국종교는 세속화를 거치면서 더 이상 격절된 저 면 곳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같이 살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복을 빌며 힘든 현실을

16) Moore, R. L., *Selling God: American Religion in Marketplace of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0-11.

같이 살아내려는 동반자적 지위를 그 정체성에 첨가하게 된 셈이다.

#### 다) 종교다원주의와 신종교의 대두

광복 이후 한국종교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종교들이 다원화 되었다는 것이다.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이른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가 상당히 팽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누구나 종교를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라도 진리라고 주장을 해도 되는 시대,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럿 있어도 된다는 시대를 전통 사회의 한국인들은 쉽게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광복 이후에는 우선 헌법상에 종교 신앙의 자유가 공공연히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교가 부정되면서 어떤 특정종교도 유독 특별한 지위를 누릴 수없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적어도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런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기독교를 앞세운 서구문화가 유입된 구한말에서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적 종교다원주의가 한사군 이후 중국으로부터 유불도 삼교가 들어와 기존의 무속신앙과 공존하게 되는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종교다원주의는 서구 기독교가 들어와 동학이 일어나는 19세기 후반으로 생각된다. 물론 동학 이전에도 무속과 유불도 삼교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다종교적 상황이었다.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도 여러 종교가 있었으나 불교가 훈요 10조에 보이듯 국교 노릇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비록 여러 종교들이 있었으나 유교가 국교인 셈이었다. 이렇게 다종교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교가 존재하면서 다른 종교들과 (종교의 자유가 칼린 채) 철저한 경쟁적 상황이 아닌 경우는 완전한 종교다원주의가 만연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19세기 후반 기독교의 유입은 한국종교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 시킨다. 기층적 무속신앙 위에 한자문화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2,000년간이나 지속되어 오던 유불도 삼교의 전통종교 중심의 종교지형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의 징후가 나타난 것이었다. 무속과 유불도 삼교에만 담겨 온 한국인의 종교(심)성이 동양적 국지성을 타파하고, 서양적 형식까지도 아우르는 세계적 차원의 통문화적(cross-cultural)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종교 상징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

이었다. 전례 없이 감히 수운 최제우의 동학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였다. 아마도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왜 하필 서학만 되느뇨?’ 기존 종교 말고도 아주 색다른 종교가 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것을 스스로도 창도해낼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줄이어 자생종교들이 생긴다. 이들은 경학 중심 사대부들의 기존 종교생활과는 전혀 다른 과감한 종교상징들을 내 세웠다. 강증산은 예전에 없던 화신적(化神的) 이미지로 자신을 드러냈다. 접주(접주) 제도 등 가톨릭의 교구제도와 유사한 신앙 공동체의 제도화가 등장한다. 특히 전통 사찰조직과는 확연히 다른 개혁불교로서의 원불교 조직은 훨씬 서구적 체계에 근접해 있다. 결국 한국인의 종교 경험은 복잡해진다. 동서양의 모든 상징체계들과 소통을 하여 폭넓은 종교적 상상력의 세계에 초대되었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특정한 종교상징 체계에만 얹매이기에는 이제 너무나 넓은 세상을 알아 버린 것이다. 다른 것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광복 이후 어느 정도 종교다원주의가 만연되었어도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았다.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란 말인가? 오랫동안 더불어 살아 와서 그럭저럭 서로 용인해 줄 수 있던 전통들과 유일신을 강조하고 공존 경험이 짧은 개신교는 같이 지내기가 힘들었다. 단군성전 건립이나 교육 이념으로서의 흥익인간 그리고 다양한 불사들을 다 보수 정통적 개신교 신앙에서는 용납하기가 어려웠다. 광신도들에 의한 훼불 사건 등 갈등 양상이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다. 일부 신학교들에서 종교다원주의에 성급한 긍정 입장은 개진하였다가 어려움을 겪은 신학자들도 있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간 대화’가 주로 한국종교인협의회, 한국종교자평화회의 그리고 한국종교학회 등을 통해 종교 지도자 또는 학자들 간에 개최되었다. 하지만 세속적 차원의 협력 등은 이루어졌으나 진정한 영적 대화는 잘 되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종립학교들에서 독자적으로만 실시되던 종교교육이 교양과목으로서 공교육으로 인정되었다. 종교교사들이 어느 종교인가에 상관없이 종교전반에 대한 지식과 한국에서 종교들의 공존 상황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실질적인 종교간 대화 교육에 한 몫을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다원주의는 점차 확산되어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컨대, 소수가 다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정의 산물이라 할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사회의 지배질서에도 다원적 성향을 초대하는데 일정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가 쉽게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교화나 미 군정청의 강제적인 미국제 도 심기의 결과는 아니다. 소수가 결코 무시되지 않고 존중되는 한국적 종교다원

주의의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종교다원주의가 폭넓은 스펙트럼의 범위에 들어오는 다양한 종교들을 용인한다는 것은 이른바 부드러운 '신종교 환경(new religion milieu)'의 여건을 짐작하게 한다. 개화기에 다양한 자생 신종교들이 대두했지만 광복 이후에도 신종교 봄은 계속된다. 다만, 아직 전통 사회적 습관이 강했던 개화기에는 역시 동양적이고 전통적인 스타일의 자생적 신종교들이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광복 이후에는 기독교의 확산과 분파화 등과 관련하여 기독교의 맥을 타고 서구적 스타일의 신종교들이 속출하게 된다.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을 비롯하여 문선명 목사의 통일교, 그리고 심지어 최근 신천지 교회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새로운 교파나 신종교들이 등장했다.<sup>17)</sup>

물론 이런 신종교들의 교세를 자세히 따져 보면, 그다지 크지 않고 매우 유동적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특정한 측면이 흥미워주로 매스컴 등에서 기사화 되어 빈번히 거론되다 보니, 일반인들에게 느껴지는 그들의 이른바 '체감 교세'는 매우 강한 경우가 많았다. 긍정적인 것인 부정적인 것인지는 따지지 않고, 광복 직후부터 1990년까지 조선일보에 난 종교관련 기사들을 분석해보면, 개신교(30%) 다음으로 신종교(27%) 관련 기사가 많다. 그러니까 불교(25%)보다 많고 가톨릭(13%)보다는 2배 이상이나 된다. 특히 조선일보 종교 관련 기사를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25년간만을 분석해 보면, 전체 기사의 42%가 신종교 관련 기사이다. 광복 이후 근 20여 년간은 종교들 중에서 신종교가 개신교를 두 배 이상 앞질러 단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이런 성향이 바뀌어 신종교는 조선일보 종교관련 기사에서 점차 줄어 비중이 예전의 반으로 되고 그 대신 기독교 관련 기사가 훨씬 확대된다.<sup>18)</sup>

17) 이런 기독교계 신종교들이 과연 기독교의 교파인가 아니면 신종교들인가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통일교는 교파인가? 신종교인가? 아마도 불교인 등이 본다면 성경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아차파 성경적 주제를 맴돌고 있으니 기독교의 한 통속으로 봐서 기독교의 교파라고 여길 것이다. 반면에, 해외에서나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음양사상 등을 포함하고 이질적인 통일교를 당연히 신종교로 볼 것이다.

18) 매스컴을 통해 비쳐진 한국종교의 모습은 매우 흥미롭다. 광복 이후 1990년까지의 조선일보를 보면, 총 827건의 종교 관련 기사들이 나온다. 그런데 광복 이후 1960년대 말까지와 그 후 1990년까지 20년을 구분해서 보면 확연히 성향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1960년대 말까지는 신종교, 불교, 개신교, 가톨릭 순으로 기사량이 많다. 그런데 그 후 20년만 따로 보면, 개신교, 불교, 신종교, 가톨릭의 순으로 종교 관련 기사량이 측정된다. 물론 광복 이후 1960년 대 말까지 신종교 기사가 많다고 그들이 실제 교세가 컸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특히 당시 기사의 거의 다가 부정적인 비난조들이다.

타종교가 쉽게 용인되는 상황은 신종교들만이 아니라, 무속이나 점술 등 민간 신앙에게도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광복 직후는 대체로 미신타파의 기치 아래 제한된 활동만이 보장되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국민적 자부심이 확산되면서 이들이 전통문화의 일부로 인정되고 새로운 형식으로 사회 속에 기능하게 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주카페를 찾고 전화나 인터넷 운명상담 등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수련, 요가, 풍수, 태로 등 다양한 장르의 대체종교들이 성행하는 시대다. 이런 가운데 한국종교의 정체성은 아주 열린 융통성 있는 종교 상징 체계로 파편화 하고 탈바꿈 하여 왔다.

### 3. 광복 이후 한국종교의 독특성 문제

한국종교의 본래 모습은 여러 구성 요인들의 통시적 변화 추이를 통해서도 추적해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독특성에 초점 맞추면서 공시적 구조를 재구성해내는 것도 중요하다.<sup>19)</sup>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해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김치 먹고 아리랑을 부를 줄 모른다면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한국종교에서도 김치나 아리랑처럼 한국적이게 하는 종교적 요소를 추출해낸다면 무엇일까?

사실 한국종교는 샤머니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불도 삼교 심지어 기독교까지 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외래 종교의 요소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다. 비록,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등 일부 형식상 고유한 기원을 지닌 민족 자생종교들이 있다지만, 한국을 대표하기에는 아직 주류 밖에 있는 힘이 못 미치는 작은 종교들일 뿐이다. 그래서 아무리 따져 봐도 딱히 ‘한국종교’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가끔 있다. 물론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종교에 진정 한국적인 독특성을 내 세울만한 것은 없는가? 독특성이라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한국 무당은 샤먼처럼 불을 다루거나 영혼여행(soul journey)을 하기 보다는 병을 고치려 방울과 거울을 사용

19) 이런 독특성의 탐구 문제는 근대 한국종교학의 전개 과정에서도 중요한 대목이다. 김종서, “한국종교의 개념과 동아시아의 종교경험,” 『종교학연구』 24, pp. 37-38, 47. 특히 허남린은 일본 종교와의 비교를 통한 경계 넘기가 ‘한국적인 것(Korean-ness)’을 탐구하는 데 효과적임을 설득력 있게 강조한다. Hur Nam-lin, “In Search of ‘Korean-ness’ in Korean Religions through Border-crossing: A Comparative Approach,”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2 No. 1 (2011): 5-31.

하고, 무엇보다도 ‘작두타기’를 해야 제대로 무당 행세를 할 수 있다. 한국 유교가 중국에서 유입되었다지만, 공자 탄신을 기리는 석전제(釋奠祭)의 원형은 중국보다도 한국에서 더 잘 보전되어 왔다. 한국 도교의 십장생(十長生)은 한국에만 있고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것이다. 한국 가톨릭은 단순히 선교된 결과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스스로 중국 등에 나가서 능동적으로 가져와 자생한 독특한 역사를 자랑해 왔다. 한국 개신교도 불과 100여 년 만에 폭발적 성장을 성취하고, 새벽기도회나 심방 같은 다른 나라에 없는 의례 형식을 독특하게 정착시켰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보면, 차별화 되는 점은 훨씬 더 나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종교의 단편적이고 표층적인 독특성보다는 좀 더 굵은 선의 심층적인 독특성을 탐구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 중국이나 일본 또는 어느 한 두 나라 종교와의 말초적인 다른 무늬들보다는 한국종교의 근본적인 구조의 차별화 되는 독특성은 없을까? 특히 광복 이후 한국종교에서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한국종교 안에서 동서양 종교문화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구조적 독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일부에서 한국종교의 독특성을 중층다원성이라고 지적해왔다. 사실 중층다원성이 한국종교의 정체성의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독특성은 아니다. 사실 종교가 다원적인 나라는 많다.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모두 나름대로 종교가 다원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늘 종교 인구조사에서 나오는 총 종교인구수가 실제 총 인구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중층성 때문이라고 강조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층다원성은 한국종교만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현대 한국종교의 진정한 독특성은 중층다원성 자체가 아니라, 그 중층다원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동양적 종교와 서양적 종교의 양자로 이루어졌는데 그 둘이 엇비슷한 엄청난 큰 규모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가 다원적인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동서양 종교가 이렇게 엇비슷한 큰 규모로 충돌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또 앞서 나왔듯이, 한국의 종교다원주의는 벌써 19세기 말 동학 이후 시작되었다고 하였는데, 동서양 종교들의 충돌이 과연 광복 이후 현대 한국종교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충돌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인 것이 맞다. 그러나 기독교가 충분히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전통종교들의 의미 있는 경쟁적 힘의 상대로 맞서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이다. 또 앞서 나왔듯이, 광복 당시 한국(남한)의 종교 인구는 총 인구의 겨우 5%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충돌이 있어도 미미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5년 통계에서부터 한국의 종교 인구는 총 인구의 반을 넘어 서고, 이미 1985년 인구 총 조사 결과에서

서양유래 기독교는 마침내 동양적 전통종교들을 교세에서 약간씩 앞지르기 시작한다.

바로 이런 동서양 종교들의 엇비슷한 힘으로의 충돌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중 하나로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 이유라고 생각한다.<sup>20)</sup> 대규모로 종교들이 충돌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사건만이 아니다. 그 종교들과 연관된 세계관들이 충돌하는 것이고, 그러한 세계관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 세계가 예전처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됨을 뜻한다. 사회적으로 이것은 규범 체계가 혼들리고(anomie), 그 사회를 떠받쳐주던 가장 근본적 개연성 구조(plausibility structure)인 상징체계(symbolism) 자체가 혼돈되고 불확실해짐을 의미한다. 어떤 종교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개종 신도들이 늘어나고, 개종하지 않는 신도들도 방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종교적 이벤트들이 앞 다투어 시행된다. 이러한 이벤트를 위해 사람과 먹고 입을 것 등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종교 자체는 물론 우선 사회 전반에 여러 차원에서 이동성이 대폭 증대된다. 더 많은 종교 공동체가 더 많은 신행을 통해 성스러움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를 더 역동적이게 하는 더 풍부한 동력원을 뜨겁게 창조해내게 된다는 말이다. 직접적인 충돌 과정이 전개되지 않더라도 맞선 종교들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한다. 갈등이 에너지를 창출하고 바로 거기서 뜨거운 열기가 솟아나는 것이다. 현대 한국종교의 정체성에는 분명히 이러한 독특한 구조적 특성에서 유래하는 역동성과 열정적인 면이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변동에 한국종교가 대응만 하였다기보다 오히려 한국종교의 정체성 변화가 한국 사회에 역동성을 불어 넣으며 변화를 불 붙였다는 말도 된다.

#### 4. 한국종교 정체성의 미래 비전

사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종교는 세계적인 관심사이어 왔다. 강한 역동성에서 유래하는 빠른 성장의 열기는 어느 나라도 따라 올 수 없을 정도였다. 2010년 현재 개신교의 해외 선교사 파견만 보아도 무려 169개국에 18,56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sup>21)</sup> 다른 종교들도 국제적인 활동이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역동성이

20)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김종서, “동서 종교간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동적 신앙,” 『종교와 문화』 16, (2009): 21-38 참조.

2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2012, p. 94.

오래도록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인가? ‘존재하는 것은 기능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은 기능주의의 기본 원리다. 되짚어 보면, ‘기능이 있어야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될지도 모른다. 한국종교는 비록 한국사회에서 비판받은 수도 많지만 확대되어온 교세만 보아도 일단 그 정체성을 인정받아 온 셈이다. 한국종교는 과연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 기능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 세계인들의 삶 속에 참여하여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광복 이후 식민 잔재 위에 한국동란의 국가적 재난을 겪었으면서도, 경제적인 면에서 오늘날 한국은 조선,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왔다. 과연 이런 것들을 성취해낸 한국인의 첨단 삶 속에서 한국종교는 진정한 역할을 해왔는가? 또 앞으로도 무엇인가 의미를 계속 창조해내야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빠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하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온 것이 광복 이후 한국인이다.

앞서 갤럽 조사에서도 나오듯 이렇게 힘들었던 한국인에게 ‘마음의 안정,’과 ‘복’받는다고 느끼게 해준 것이 바로 한국종교였다. 또 그도 저도 이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세’를 기약했던 것도 한국종교였다. 과연 이런 한국종교가 없었다면, 부존자원도 하나 없는 이 작은 나라에서 그 힘든 역경들을 딛고 일어서 오늘날 세계 7대 무역대국의 자리에 한국이 오를 수 있었을까? 조금 성장하다가도 무너진 나라들이 세계에는 너무 많다. 돈을 벌어도 사회적인 윤리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면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 준 것이 역시 종교들이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종교는 경제 도약기의 한국을 지켜준 영적인 힘이었다. 한국현대사를 논할 때 진정 빼놓을 수 없는 ‘국민의 정신적 자본(national mental capital)’<sup>22)</sup>이었던 셈이다.

과연 한국종교는 언제까지 활력을 유지하고 열정을 쏟아낼 수 있을까? 역동성이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면, 국운은 계속 상승세만 탈 수 있을까? 2005년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 종단 인구를 감안 했을 때, 전통종교의 신도들의 연령이 기독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sup>23)</sup> 즉 불교 같은 전통 종

22)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의 나이(J. Nye) 교수는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우어와는 달리 특히 문화 등을 통해 자발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소프트 파우어’라는 용어로 제시하면서 오늘날에는 하드 파우어 보다도 소프트 파우어가 강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였다. 종교는 당연히 소프트 파우어의 대표적인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다른 나라들이 당면하게 될 동서양 종교의 충돌로 인한 역동성의 상황을 먼저 살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한국은 종교 선진국이고 소프트 파우어의 강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Nye, J.,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참조.)

교에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이다. 앞으로 한국종교의 구성이 기독교적 경향으로 점차 더 나아갈 것을 예측할 수 있다.<sup>24)</sup> 한국종교의 정체성도 그 방향으로 더 움직여 나아갈 것이다.

과연 언제까지 기독교가 커질 것인가? 개신교는 벌써 성장률이 최고점에 달한 뒤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가톨릭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인가? 동서양 종교의 충돌에서 역동적 에너지가 생겼다는 위의 가정이 맞는다면, 역시 동서양 종교가 차지할 수 있는 위상의 최적 점은 양자가 거의 같은 비중이었던 1985년 어간이 대한민국 국운의 절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도 있다. 동서양 종교의 엇비슷한 비중이 깨지고 한쪽으로 기울면, 충격량이 감소하여 역동성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트렌드를 거슬러 누군가가 비중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25)</sup>

다만, 21세기는 점차 국가 개념이 깨지는 시기라고도 한다. 기업들도 다 국적화 되고 국가 개념에 얹매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 한국의 양궁 기술은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올림픽에서 한국 기술을 전수받은 외국 선수들이 심지어 한국 선수들을 압도하기도 한다. 한국종교도 앞으로 세계 종교문화 속에 녹아 스며서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sup>26)</sup> 한국에서 시작된 세벽기도회 같은 독특한 의례가 다른 나라에서 더 업그레이드되어, 오히려 한국에 재도입되는 날을 기대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때쯤 한국종교의 정체성은 진정 무엇일까? 과연 한국종교 정체성의 탐구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땅의 종교학도들에게 새로

2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2012, p. 21.

24)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가톨릭은 무려 74% 신도수가 늘어나고, 개신교는 오히려 약간 줄어든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주로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으로의 개종이 많았다. 전체 기독교 신도의 성장률은 큰 변동이 없었다.

25) 2012년 말 미국중앙정보국(CIA)를 비롯한 16개 정보기관의 리포트를 종합하는 미국 국가 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의 2008년도 자료가 공개되었다. 2025년쯤 한국은 통일이 되든가 적어도 남북한이 느슨한 정치공동체 연방으로라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거리가 있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25 : A Transformed World*, 2008, 박안토니오 옮김, 『(변모된 세계) 글로벌 트렌드 2025』, 경기도: 한길사, 2009) 혹시 중국종교들의 부흥 시대가 열려서 다시 동서양 종교의 비중이 엇비슷해지는 시기가 올까 상상해본다.

26) 사실 한국불교의 승려들은 '한국 승려'라기 보다 (국가 개념과는 상관없이) 문종, 선문, 학파 그리고 수행 전통에 연관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국 승려끼리나 일본 승려끼리 보다 같은 친대종 승려라든지 같은 선문 출신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Buswell, Robert E., Jr., "Thinking about 'Korean Buddhism': A Continental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1, Nos 1 & 2 (2010): 43-55.

던져지는 절실한 질문이 될 것이다.

주제어 : 한국종교, 세속화, 종교다원주의, 종교인구, 정신적 자본

원고접수일: 2013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2013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2일

## 참고문헌

- Baker, Don, "A Slippery, Changing Concept: How Korean New Religions Define Religion,"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2 No. 1 (2011).
- Buswell, Robert E., Jr., "Thinking about 'Korean Buddhism': A Continental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1, Nos 1 & 2 (2010)
- Caplow, Theodore, et al., *All Faithfull People: Change nad Continuity in Middletown's Relig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 Hulbert, H. B., *The Passing of Korea*, London, 1906.
- Hur Nam-lin, "In Search of 'Korean-ness' in Korean Religions through Border-crossing: A Comparative Approach,"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2 No. 1 (2011).
- Inoue, Nobutaka, *Contemporary Japanese Religion*, Tokyo: Foreign Press Center, 2000.
- Kim, Jibum, Yongmo Lee, and Tom W. Smith, "Trends of Religious Identification in Korea: Changes and Continuiti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8/4, (2009).
- Moore, R. L., *Selling God: American Religion in Marketplace of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25 : A Transformed World*, 2008, 박안토나오 옮김, 『(변모된 세계) 글로벌 트렌드 2025』, 경기 도: 한길사, 2009.
- Nye, J.,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Rosten, Leo, ed., *Religions of America*, New York: Touchstone, 1975.
- 김낙년 편, 『한국의 장기 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 서울대출판문화 원, 2012.
- 김종서 외,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김종서, "개화기 사회문화 변동과 종교인식," 권태억 외,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4 종교와 문화

김종서, “동서 종교간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동적 신앙,” 『종교와 문화』 16, 2009.

김종서, “한국종교의 개념과 동아시아의 종교경험,” 『종교학연구』 24, 2005.

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한국사상사대계 6』,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2012.

村山 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최길성, 장상언역, 계명대출판부, 1991.

<Abstract>

## The Identity of Korean Religion after 1945

Kim, Chongsu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dentity of modern Korean Religion has been often said to be characterized by the multi-layered religious pluralism. This thesis, however, emphasizes the balanced competitive situation of the eastern religions and the western religions much more than that. Above all, the identity of the modern Korean Religion after 1945 is noted to be changed through the mega trends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secularization including commoditization and liberation of religions, the introduction of the Christianity and religious pluralism and various new religious and spiritual movements. As a result, such change of religious identity as it has been above mentioned is explained to be composed of the uniqueness of the balanced competitive situations and religious dynamics expanding to other social areas in the contemporary Korea.

Key Words : Korean religion, secularization, religious pluralism, religious population, mental capital